

《소나기》를 그리다

- 첫사랑의 기억

AI로 복원하다

ISO AI Creator 권성근

《소나기》비주얼 스토리 제작을 위한 AI 활용 여정

목차

1

감성 중심
기획 아이디어 설정

2

AI 기반 이미지
생성 실습

3

나레이션 대본
및 음성 합성

4

영상 편집 및
감정선 구성

5

결과 발표 및
공유 확장 전략

《소나기》 프로젝트의 시작

— 왜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그리는가?.

누구나 가슴에 담고 있는 **첫사랑**의 기억,
그 감정을 **AI**와 함께 다시 그려보는 **창작**
실험
기술은 도구가 되고, 우리는 **이야기꾼**이 된다

《소나기》- 황순원, 1953

감정을 그려내는 기술

- 《소나기》를 완성하는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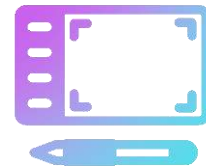
내 손으로 그리는 이야기의 장면들

- 다양한 생성형 도구로
나만의 장면을 시각화
- 소설을 이미지로
번역하는 창작 활동



감정에 기술을 더해, 이야기를 완성하다

- 문학적 감성 이해 +
디지털 스토리 제작
역량 함양
- AI와의 협업을 통한
스토리 해석 능력 강화



함께 만든 이야기, 함께 나누는 결과물

- AI를 도구로 삼아
결과물 제작에 도전
- 발표, 공유, 피드백까지
전 과정 참여

AI는 도구이자 동료다

이야기를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감정의 출발점

이 이야기는 당신만의
해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소년과 소녀의 첫사랑을
읽는 그 순간, 우리는
감정을 떠올린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그
감정을 다시 그리는
여정이다.



기술의 손길

창작의 주도권은 여전히
인간에게 있습니다.

AI는 감정을 대신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느낀
감정을 형상화해줄 수
있다. 그림, 목소리, 장면으로
감정을 표현해주는 창작
도구다.



창작의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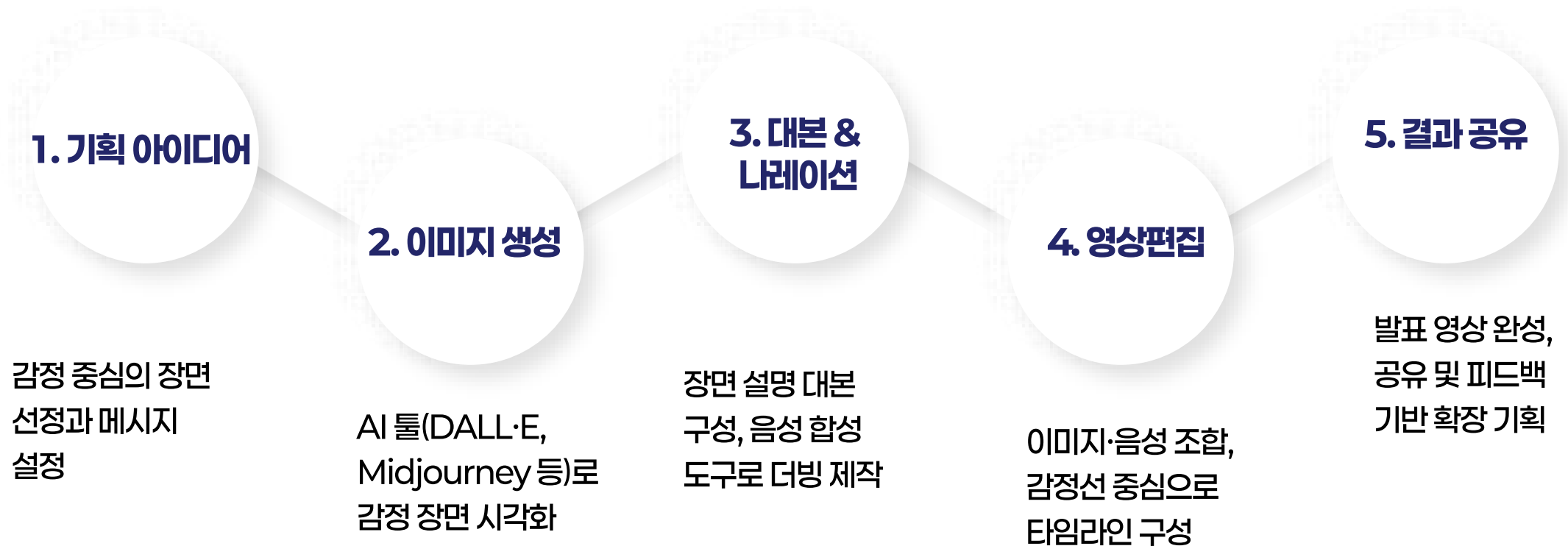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와 연결됩니다.

완성된 콘텐츠는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다.
창작자는 감정과 기술의
해석자이며, 공감과 책임의
전달자다.



《소나기》프로젝트 제작의 흐름

기획에서 공유까지, 감정을 영상으로 완성하는 여정



하나의 장면, 하나의 감정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AI와 함께 완성된 하나의 콘텐츠로 이어집니다.

《소나기》프로젝트에서 활용한 AI 도구들

AI는 도구이자 창작의 파트너입니다.



1. 기획&대본 작성

도구: ChatGPT,
Notion AI

용도: 감정 흐름 정리,
장면 설명 대사 구성



2. 이미지 생성

도구: DALL·E,
Midjour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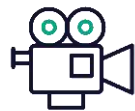
용도: 장면 분위기 시각화, AI
기반 감성 이미지 생성



3. 음성 나레이션

도구: Typecast,
ElevenLabs

용도: 레이션 감정 조절,
인물 대사 합성



4. 영상편집

도구: CapCut,
Canva

용도: 장면 조합,
자막·음성 타이밍 조정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도구는 도와주는 손, 이야기를 만드는 힘은 여전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소나기》를 감정으로 설계하다

영상은 감정선의 흐름을 따라 만들어진다



장면이 아닌 감정의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야기.
이 흐름 위에 시가 기술을 얹고, 당신이 감정을 입힙니다.

기획부터 편집까지, 감정 흐름을 구현하는 AI 파트너들

AI 도구로 완성하는 감성 콘텐츠 제작의 여정

01. 기획 시작

 **스토리 기획 및
대본 작성**

ChatGPT, Notion
AI 등으로 감정 흐름
정리,
장면 대사 구성

01

02. 이미지 제작

 **감정 장면 시각화**

Midjourney,
DALL·E로 소설
장면을 감성 이미지로
생성

02

03. 나레이션 삽입

 **음성 생성 및 감정 톤
적용**

Typecast,
ElevenLabs를
활용해 인물 음성
합성 및 감정 조절

03

04 영상편집

 **최종 영상 완성**

CapCut, Canva
등으로 이미지와 음성
조합, 자막 및
시각효과 완성

04

감정은 창작자의 언어입니다.

AI는 그 감정을 시각과 음성으로 실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 기억이 흐려져 가도,
감정의 여운은 빗방울처럼 가슴에 남는다.
AI는 그 여운에 다시 색을 입힌다.

권성근/ AI Creator